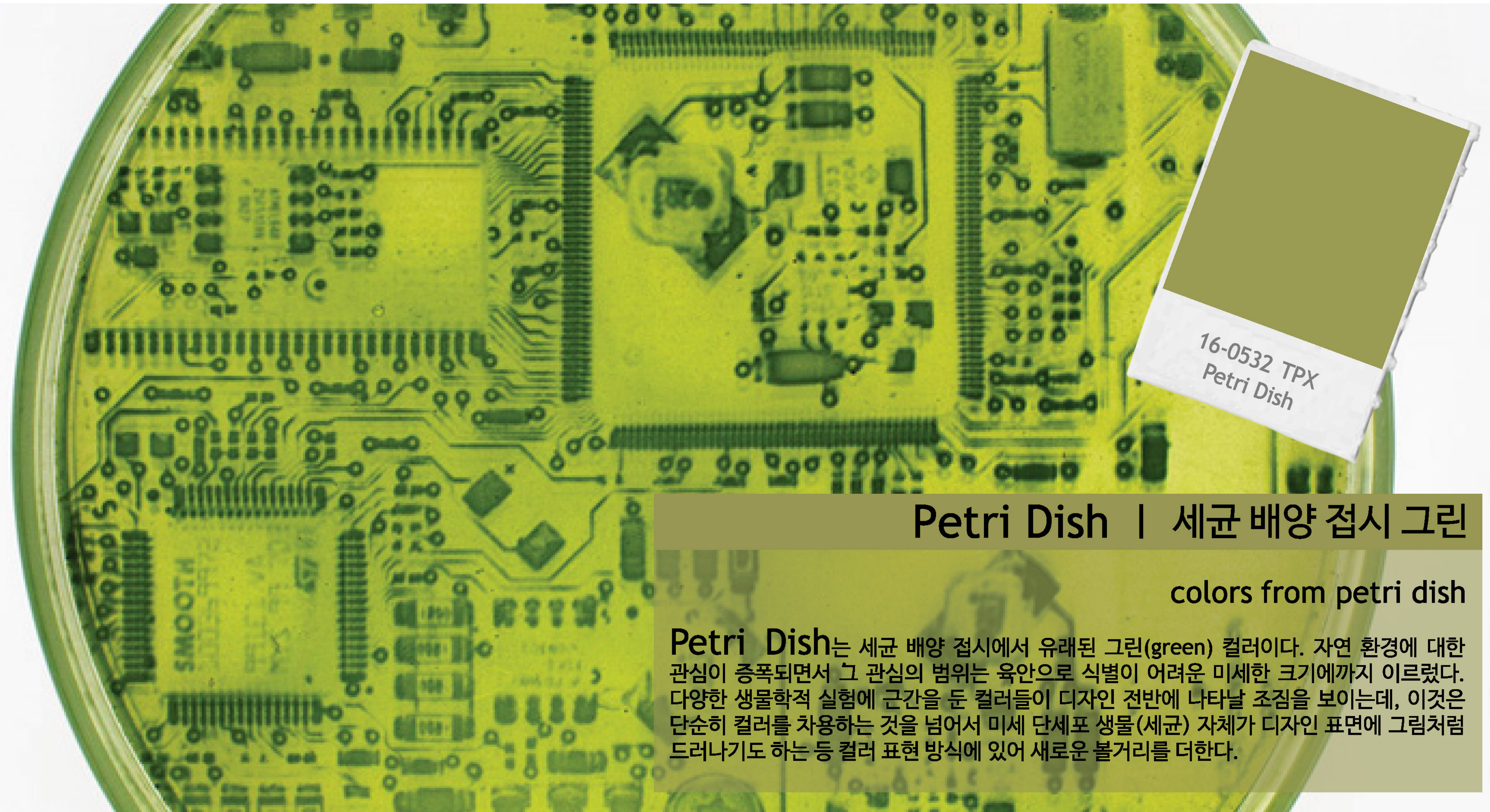


6 KEY COLORS FOR 16 SEASON

16년도를 위한 CFT의 6가지 키 컬러 제안 3 / Petri Dish





Petri Dish | 세균 배양 접시 그린

colors from petri dish

Petri Dish는 세균 배양 접시에서 유래된 그린(green) 컬러이다.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그 관심의 범위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미세한 크기에까지 이르렀다. 다양한 생물학적 실험에 근간을 둔 컬러들이 디자인 전반에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히 컬러를 차용하는 것을 넘어서 미세 단세포 생물(세균) 자체가 디자인 표면에 그림처럼 드러나기도 하는 등 컬러 표현 방식에 있어 새로운 볼거리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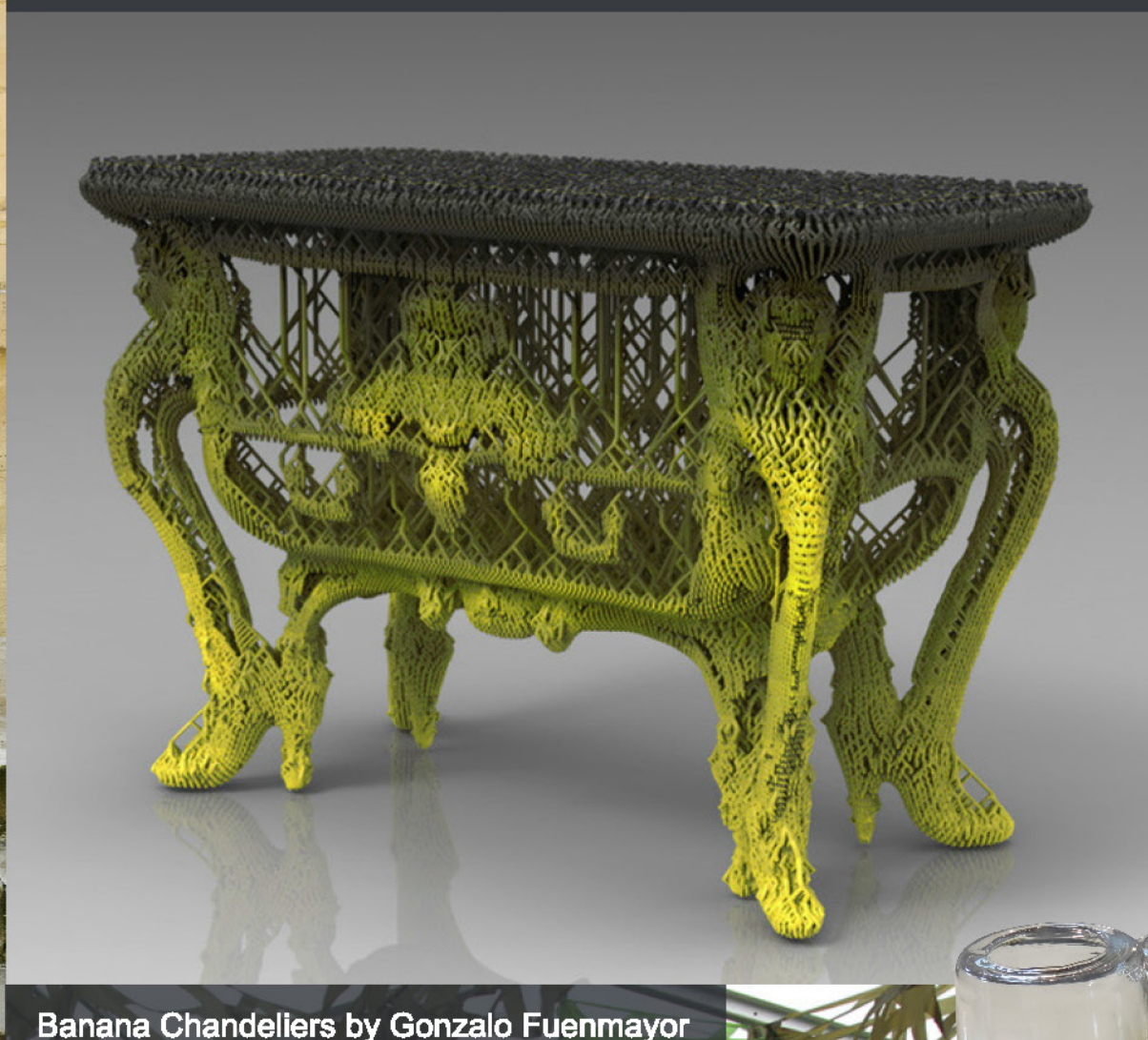
Hanging Forest at Boutique Patrick Roger Chocolatier by Gilbert Moity



Foliage by Sam Baron



18th Century Commode with 3D Printed Design by Vincent Coste Architecte



Limber Gems by Pleunie Buyink



Fountain House by Raumlabor



Banana Chandeliers by Gonzalo Fuenmayor



Cultures by Lia Giraud from Tumblr



Panino Giusto by Sandra Tarruella Interioristas

Color For Life

Petri Dish는 플랑크톤 이상 증식으로 나타난 적조(red tide)를 연상시키는 브라우니쉬 카키 톤(brownish khaki tone)에서부터 단세포 생물 간의 활발한 충돌을 보여주는 올리브 그린 톤(olive green tone)과 다크 그린 톤(dark green tone), 생의 주기를 마치는 오래되고 빛바랜 생물체와 같은 건조 빛깔 카키 톤(hay-ish khaki tone)으로 이어지는 그린, 카키 계열의 팔레트를 구성한다. 이 팔레트는 건축물 외벽 혹은 인테리어, 가구, 조명 및 실내 장식을 비롯하여 각종 오브제와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자연의 숲을 형상화 한 설치 조명, 이끼 패턴의 카페트, 현대식으로 해석된 3D 프린팅 코모드(commode; 서랍장) 등을 들 수 있다. Petri Dish를 포함한 그린, 카키 팔레트는 그 유래를 생물체 혹은 자연물에 두지만 그것의 쓰임은 소재, 형태, 주제 등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활용된다.



Color For Fashion

앞의 'Color for Life'에서 설명한 팔레트는 패션에 있어 과감하게 크롭된 퍼(fur) 재킷, 플리즈를 응용한 시스루(see-through) 스커트, 캐주얼 한 스팅글 스웨트셔츠(spangle sweatshirts)와 품이 넉넉한 하이 웨이스트 팬츠, 수트 칼라와 블루종 소매를 결합한 나일론 재킷, 군용 천막을 둘러입은 듯 한 오프 숄더 드레스 그리고 니트 원피스에 이르기까지 대범한 스타일과 다양한 소재로 제안된다. 헤드 투 토 컬러(head-to-toe color)로 제안되며 소재 베리에이션(variation)으로 재미를 더한다.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CFT)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 산업에서 컬러 트렌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자인DB(<http://designdb.com/>)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전략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 남도빌딩 5층
T. 02)549-2362 F. 02)549-4745 H. www.cft.or.kr